

# 개인화가 가속되는 아랍 MZ세대에 관한 분석

홍재훈\*

I. 서론

II. 중동아랍권의 정체성

III. 기존 사상 약화에 영향을 미친 중동지역 최근 사건을  
통한 거시적 분석

IV. 아랍 청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미시적 분석

V. 결론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동학 박사

### ■ 한글초록

중동 아랍지역에서는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지혜와 지식을 흘러보내주며 가부장적이고 부족주의적인 전통으로 동일한 사고방식이 계승되어져 왔었다. 근대에 와서는 현지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탑다운 식으로 형성된 거대 담론이 아랍인들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되었다. 오랜 기간 동일한 가치체계로 강력한 연대를 보였던 아랍지역에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 지역 인구 통계적으로 가장 큰 그룹인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기존 사상들을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윗세대의 획일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온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인주의가 퍼지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변화하는 역학관계로 기존 사상에서 이탈하는 행보를 보이는 개별 국가들의 정책이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생존 전략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아랍 젊은이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가속화되어지는 개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아랍, 신세대, 청년, 개인화, 개인주의, 정체성

## I. 서론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는 MZ세대<sup>1</sup>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한 열풍이 불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공약을 쏟아낸다. 기업에서는 소비의 주체가 되는 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한다.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곳들에 어렵사리 입사를 했는데, 몇 년 뒤에 과감하게 이직을 하는 이들을 잡기 위한 대책들로 사내문화는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이렇게 모든 분야로부터 조명을 받는 이유에는 MZ세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차지하면서, 향후 각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이 사회를 이끌어갈 주체이기 때문이다. 2019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MZ세대는 전체 인구의 34.7%(1,797만4천명)<sup>2</sup>, 서울시 인구의 35.5%(343만명)를 차지하며 서울에서는 가장 큰 집단으로 등극하게 되었다.<sup>3</sup> 어느 지역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가장 활발한 경제주체와 곧 이 그룹으로 편입하게 될 잠재주체자들에 대한 연구는 필수일 것이다. 그래서 MZ세대는 대한민국 미래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MZ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게 있지만 통상적으로 1980~2000년생을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5~2004년생을 뜻하는 Z세대를 합친 말로 2022년 기준 18~42세를 지칭한다.

2 신동현, “통계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뉴노멀 시대, 대한민국의 변화와 이슈,” 통계청, [http://sti.kostat.go.kr/window/2020b/main/2020\\_win\\_15.html](http://sti.kostat.go.kr/window/2020b/main/2020_win_15.html) (2022년 1월 19일 접속)

3 “서울시 MZ세대 첫 분석 시민 셋 중 한명,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 집단,”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1.8.10)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0668> (2022년 1월 19일 접속)

어느 지역이든 대한민국의 MZ세대처럼 한 지역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가 존재한다. 이들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집단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아랍MZ세대일 것이다. 아랍의 젊은 세대들은 전 인구의 2/3가 35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sup>4</sup>, 중동지역에서는 15세에서 29세 사이가 인구가 전체의 28%를 웃돌 정도로 역사상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성년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sup>5</sup> 아랍의 십대와 청년층은 이례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집단체로 규모의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에서 오랜 기간 붙잡고 있었던 기존 세대의 정체성에서 탈피하게 되는 사회적 사건들을 통하여 급격한 변모들을 겪으면서 자라나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윗세대들이 아래 세대에게로 지혜와 지식들을 흘려보내주며 가부장적이고 부족주의적인 전통으로 동일한 사고방식이 계승되어져 왔다. 근대에 와서는 현지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탑다운 식으로 형성된 거대 담론이 아랍인들을 규정하는 정체성이 되었으며,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 유사한 가치체계를 형성 시켜 왔다. 이로 인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혹은 중동아랍권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질성(Heterogeneity)을 보일뿐만 아니라, 이 지역만의 독특한 동질성(Homogeneity)을 강하게 보이고 있기에 지역학 방법론에서 말하는 하나의 지역 단위로 성립되어 거시적인 분석으로도 많이 언급되어

4 Anna Bjerde, "Fulfilling the aspirations of MENA's youth," World Bank Blogs, (2020.1.13) <https://blogs.worldbank.org/arabvoices/fulfilling-aspirations-menas-youth> (2022년 1월 19일 접속)

5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Youth Facts, Youthpolicy, <https://www.youthpolicy.org/mappings/regionalyouthscenes/mena/facts/#FN13> (2022년 1월 19일 접속)

졌었다.<sup>6</sup> 그러나 시대의 변화로 조금씩 균열이 가던 기존의 주요 정체성들은 중동지역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아랍의봄’ 사건으로 변환점을 가졌다. 새롭게 방향성을 튼 변화의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다가 2년여 시간을 흘러보내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되어진 것 같다. 새로운 시대 배경으로 기존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는 중동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해 아랍 신세대들에 대한 분석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아랍인들의 주요 정체성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아랍의 봄 이후 중동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아랍인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을 국가 주도적인 사건들을 통해 어떠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이 지역내에 흐르고 있는지를 보고, 매년마다 아랍 신세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Arab Youth Survey의 결과를 통해 미시적인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

## II. 중동아랍권의 정체성

### 1. 아랍민족주의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동일한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지닌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처럼, 아라비아 해와 대서양사이에 있는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서아시아국가들의 연합을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이며,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아랍인이라는 공통점으로 단일 국가라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이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6 하병주,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모색 I,”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1호, (부산의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2007): 257-258.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Zionism* (팔레스타인지역에 유대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주의운동)은 과대평가되고, 아랍 내부의 각기 지역들의 특징들은 외세에 대응이라는 명목 하에 평가 절하되면서 아랍민족주의는 더욱 강화되어졌다.<sup>7</sup> 그리고 서구의 정치세력과 외세에 대항하기 위해 아랍민족끼리 동맹을 형성해야한다고 주창하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1950-60년에 가장 널리 퍼졌었다.<sup>8</sup> 광범위한 지역의 무수한 아랍 내부의 특징들을 희석시킨 이 사상은 탈식민지 시대에 종교와 국가에 대한 제한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주민들의 정체성을 좁게 개념화 시키는 도구가 되었다.<sup>9</sup> 이는 오늘날까지는 아랍어를 사용하는 동일한 혈통, 인종, 민족이라는 공동의식으로 다른 집단과의 배제를 통해 결속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아랍이라는 공통분모로 중동·북아프리카지역에 위치한 22개국들이 아랍제국의 독립과 주권보호를 위한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1945년에 만들어진 *League of Arab States* (아랍국가연맹)라는 지역기구도 있다.

## 2. 이슬람주의

“너희는 가장 좋은 공동체의 백성이라 계율을 지키고 악을 배제할 것이며 하나님을 믿으라...” (Quran 3:110)<sup>10</sup>

7 Muhammad Muslih, “Arab Politics and the Rise of Palestinian Nationalism,”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16, No.4, (Summer 1987): 77-94.

8 “Arab Unity.” *The Continuum Political Encyclopedia of the middle East*, Ed. (Avraham Sela, New York: Continuum, 2002): 160-166.

9 Fanar Haddad, “Marked for Exclusion: The Problem of Pluralism, State-Building, and Communal Identities in Iraq and the Arab World,” *Middle East Institute* (August 2014)

10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

꾸란에서 옴마는 공통된 종교적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집단<sup>11</sup>을 의미한다. 다신교가 성행하던 아라비아 반도에서 무함마드의 계시를 통해 6세기경 생겨난 이슬람교는 무함마드 선지자의 뜻을 계승한 여러 왕조들의 지역적 확장을 통해 주류의 종교가 되었다. 특히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결합된 옴마공동체의 특징은 지역적인 전통문화와 생활 속에 이슬람 종교가 뿌리내려 공동체원들의 정체성에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슬람의 기도시간은 무슬림들의 하루 일과의 기준이 되고, 이슬람법과 명절은 회사 운영 지침 등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하여 이슬람은 아랍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체성으로 가치체계와 행동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슬람이 크게 수니와 시아로 나뉘면서, 이슬람주의 정체성 안에서도 두 갈래로 구분되어져 있다. 1969년에 창설된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이슬람협력기구)는 동남아시아부터 서아프리카지역까지 이슬람국가들의 협력증진과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57개국의 연합체로 1969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 3. 근대개별국가주의

국가주의 정체성은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문화, 종교, 사회적 계층 등 고려해야 할 여러 대상들이 있겠지만, 그 해당 국가를 최우선에 두는 정체성을 말한다. 이는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통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국민을 사회조직과 운영의 근본적인 단위로 삼고, 다른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기결

11 Houtsma, ed., *E.J. Brill's First Encyclopedia of Islam, 1913-1936*, (1987), 125-126.

정권을 국가 스스로가 통치해나가는 정치적 이념이다.<sup>12</sup>

19세기 근대이전 대부분의 중동지역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하여 특별한 개별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이 지내왔다. 그러던 중 오스만 제국이 정복한 광활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탄지마트 개혁을 시행하면서 중동 아랍 지역인들에게 근대국가주의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기존 사회경제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해체 되고, 중동 아랍지역에는 신생개별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급작스럽게 형성된 국가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심겨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초기에 서구의 철학과 정치적 가치를 배운 아랍인들과 정치집단을 통해 국가주의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슬람이 종종 국가주의자들의 담화에 필수 부분을 차지하고 종교집단들도 국가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다.<sup>13</sup>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범아랍주의와 이슬람주의가 약해지면서, 그 공백을 개별국가주의가 차지하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오늘날에는 안정적인 생존 오아시스를 개별 국가 내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정부를 향한 호소와 급격한 발전을 이룬 자긍심을 애국심에 연결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4. 부족주의

부족주의는 일반적으로 씨족이나 부족을 기반으로 한 집단들이 사회적 결속을 추구하는 이념을 말한다. 중동지역에서의 부족

12 Jonah D. Levy, ed., *The State After Statism: New State Activities in the Age of Liberaliz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469.

13 Bassam Tibi, *Arab Nationalism: Between Islam and the National State* (Hampshire and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7), 86-87.

주의는 민족국가와 이슬람 종교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아랍 정체성의 근간으로 존재했으며 오늘날에도 부족의 연대감이 국민국가보다 우선시되는 것을 종종 목도되어지기도 한다.<sup>14</sup> 거친 광야에서 유목생활을 해왔던 아랍인들에게는 광야에서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외부세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가족들로 구성된 부족뿐이었다. 그리하여 혈연 공동체는 사막 생존의 가장 기본단위로 강한 결속력을 보인다. 특히 부족을 뜻하는 아랍어 카빌라(*qabila*)는 부족을 형성하지 못한 집단을 가리키는 단어인 카디리(*khadiri*)와 구별되어, 생존의 필수요소인 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우월적 자부심을 단어에 넣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부족들은 정착을 하면서 부족 간의 병합을 이루며 더 큰 세력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부족 간에 우월과 열등으로 나뉘지는 경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부족혈통의 순수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다른 열등한 부족원과의 결혼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도 나타나면서 개인의 삶과 정치·사회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sup>15</sup> 오늘날에는 인맥을 통한 구직과 일처리를 하는 와스타(*wasta*)가 대표적인 현대판 부족주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안정적인 인구구조의 에미라티 가족을 계속적으로 구축하고 유지하고자 에미라티 남성들이 에미라티 여성들과 결혼하도록 장려하고 있다.<sup>16</sup>

14 Cohen, Jack, "The Middle East Conflict in the Context of Tribal Dispute," *Group Decis Negot* 20 (2011): 373-380.

15 Philip, Salzman, "The Middle East's Tribal DNA," *Middle East Quarterly* (2008 winter): 24.

16 Marriage,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social-affairs/marriage> (2022년 1월 25일 검색)

## 5. 개인주의

사막 환경에서는 부족의 존립유무가 구성원의 생존과 직결되기에 한 개인의 삶은 부족보다 중요시 될 수 없었다. 이슬람교를 가진 무슬림들도 신의 뜻이라면 한 개인의 의견이나 처지 등을 고려치 않고 순종해야할 영역이었다. 외부의 적에 대항하고, 새로운 공동체인 신생 국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아랍민족과 개별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하는데 개인을 희생시켜 왔다. 아랍의 세계의 근간이 되었던 이러한 사상들로 형성된 충성과 의무는 아랍인들이 그들의 지도자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맺는 것에 강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던 중 기존에 강하게 작용하던 사상들이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약해졌고, 개인주의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였던 이곳에도 급부상하게 되면서 개인주의로 가족, 부족장, 정치 리더들에게 도전을 주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 발발한 아랍의 봄은 아랍의 세계에 개인주의 유입과 확산의 분기점이 되었다. 아랍세계에서 개인주의의 확산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기존 네트워크 사용이 줄고, 또 다른 확장된 가족과 친구들과의 공유 시간 증가와 소셜미디어가 정보 제공의 대체제가 되면서 개인주의가 커지기 시작했다. 실업률 상승과 경제 불황, 부패와 사회적 불만들이 기존 사고방식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개인 의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 Ⅲ. 기존 사상 약화에 영향을 미친 중동지역 최근 사건을 통한 거시적 분석

#### 1. GCC 순니파 형제국의 분열: 카타르와의 단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이렇게 6개국은 걸프지역에 위치한 이슬람 순니파 왕정국가라는 공통점을 지녔다. 이들은 1981년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를 결성하여 공통의 정치, 외교정책 노선을 취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어느 지역 협력체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000년부터 본격적인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하나둘씩 걸길로 가기 시작한 카타르의 독자행보는 주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중 2013년 이집트의 엘시시(Abdel Fattah el Sisi)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뒤 반대 정파에 있던 무슬림형제단의 일부가 그들을 보호해준 카타르로 도피하였다. 이에 2014년 사우디, UAE, 바레인은 카타르에 주재하던 자국 대사를 소환하며 카타르를 강하게 압박하여 결국 그들을 국외 추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순니 아랍국의 경계대상인 이란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종종 갈등을 일으켰었지만, 매번 금방 봉합되었다. 이렇게 조금씩 균열의 조짐이 보이던 이들의 관계는 2017년 6월 사우디, UAE, 바레인과 이집트가 카타르와의 단교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2021년 1월 제41차 GCC정상회담의 재정상화 결정까지 3년 넘게 지속되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해당 국민들에게도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되었다. 이번 단교는 카타르가 이슬람 테러조직과 친이란 무장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작되었다. 단교를 주도한 사우디 측은 걸프 지역 내 안보를 유지하고 테러 척결 등의 위해 13개의 선결이행 요구사항들을 제시하며 강력한 봉쇄를 시작했었다.

단교 발표 직후 UAE와 이집트에 거주하는 카타르 국민들에게 48시간 내에 자국에서 떠날 것을 종용하여, 현지의 사업체를 내버려둔 채로 급하게 귀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사우디와 연결된 육로 및 하늘 길과 바닷길의 왕래를 전면 차단당한 카타르는 주변국으로부터 오던 수입 생필품 공급이 중단되어 한 달 정도 사재기 등 불안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sup>17</sup> 단교에 참여한 국가에서 알자지라, 카타르항공 등 카타르소유 회사들의 홈페이지 접속까지 차단되었다. 순니파 이슬람국가사이에서 이루어진 집단적이고 장기화된 봉쇄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정부는 알자지라 방송국 폐쇄 등 이행하기 힘든 조건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관계 단절은 장기화되었다. 중동 산유국중에서의 첫 OPEC탈퇴, GCC정상 회담 불참, 수입물품 조달국의 다변화, 자국 내 생산시설을 갖춘 현지 식료품 기업 확장 정책을 통한 식량안보 구축 등 카타르는 기존에 끈끈한 관계를 맺던 수니 이슬람국가들과 결별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과도 손을 잡으면서 새로운 생존전략을 만들어갔다.

국가 지도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단교이지만, 자국 중심으로 보도되는 언론 등으로 인해 그동안 형제애를 자랑하며 지내왔던 해당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감정적 단교가 일어났다. 카타르 남성과 UAE 여성이 결혼하여 현재 카타르에서 살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

17 Steven Mufson, "How Qatar's cows show the growing resistance to a Saudi-led boycott," The Washington Post, (July 21st,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middle\\_east/how-qatars-cows-show-the-growing-resistance-to-a-saudi-led-boycott/2019/07/19/78880256-a4b2-11e9-a767-d7ab84aef3e9\\_story.html](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middle_east/how-qatars-cows-show-the-growing-resistance-to-a-saudi-led-boycott/2019/07/19/78880256-a4b2-11e9-a767-d7ab84aef3e9_story.html) (2022년 1월27일 검색)

데 이들은 그동안 이슬람 명절때마다 서로 자연스레 왕래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일정기간 직접 방문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골이 생긴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양국에 거주하던 친인척들은 단교 초반에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어서, 국민들 사이에는 나쁜 감정이 없고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번 사태의 원인을 상대국가의 잘못, 즉 카타르가 테러조직을 지원해서, 혹은 아랍 에미리트가 잘못 알고 있어서 발생한 사태로 간주하며 서로를 향한 아쉬움이 억울함과 증오로 변해갔다. 최근 UAE에 거주하고 있는 카타르 여성의 남동생에게 단교 이후의 관계에 대해 물어본 질문에 이제는 예전같이 았다며 웬만하면 서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sup>18</sup>

지역 내 안보와 테러리즘 척결, 경제협력강화 등을 약속하며 재정상화가 되었지만, 순니파 이슬람과 아랍 형제애로 형성되었던 끈끈함은 약화되고, 이제는 서로가 최우선순위 대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특별히 여러 민간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준 각 정부들의 결정이 각 국민들에게도 서로에 대한 깊은 갈등의 씨앗을 남기게 되었다.

## 2. 70년 해묵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재편: 아브라함 협정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정식 외교 수립협정을 맺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인접국인 이집트(1974

18 1형제, 2022년 1월 21일, 현지인 가정.

년)와 요르단(199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아랍국가와 국교 수립을 맺게 된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 ‘아브라함협정(Abraham Accord)’이라고 명명하며 서로의 공통분모를 부각시켰다. 이어 수단과 모로코도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으며 오래기간 단절되었던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의 관계망이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협정을 통해 수단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자국의 이름을 삭제하고, 세계은행을 통해 10억불 원조를 통해 국내 정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모로코는 서부 사하라지역에 대한 주권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바레인은 미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굳건한 안보체계를 확립하고, 이스라엘 정착촌 제품에 대한 통관 허브의 꿈을 꾸며 경제적 도모를 기대하고 있다. 아랍 에미리트 또한 이스라엘과의 전방위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교역중심지로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되었다. 특히 중동지역에 굴러들어온 돌로 적대관계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숨통을 트이게 되고, 아랍 국가들과 이란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초석도 마련하게 되었다. 아브라함 협정은 1948년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 나라를 건설한 이래로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이스라엘을 아랍인의 위협대상으로 여기며 꽃피웠던 아랍민족주의 사상에 균열을 낸 사건이 되었다. 범 아랍민족주의의 깃발 아래 아랍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이 정치사조는 팔레스타인지역 문제에 대하여 2002년 아랍연맹 정상회담을 통하여 중동평화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1967년에 점령한 아랍 영토에서 전면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승인한다면, 아랍

연맹 22개 회원국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관계정상화를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었다.<sup>19</sup> 이는 2007년과 2017년 아랍연맹 회의에서 재승인을 받으며 최근까지도 공동의 의견으로 결의했던 내용이였다. 그러나 아브라함 협정은 오랜 기간 아랍국가들이 공동으로 협의해왔던 이 내용을 깨뜨린 것이 되었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아브라함 협정을 맹비난하였지만, 이 협정에 참여하는 개별국가들이 누릴 정치·경제적 이득은 더 이상 각각의 개별국가에게는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 정치사조의 끈을 놓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아랍민족인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낸 주적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아랍이라는 이름하에 동일한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협정체결로 해당국에는 실제적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아랍 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이 생기고, 아부다비에 유대교 율법에 의거한 식재료와 조리과정을 거친 코셔(Kosher)식당이 생겼으며, 아랍 에미리트의 주요 해안가에는 이스라엘 벤처자본으로 설립된 회사의 전동스쿠터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양국의 청년들의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협정을 맺은 지 1년이 흐른 뒤 살펴본 평가에서 금융, 투자, 안보, 기술, 관광, 에너지, 코로나 대응 등 공공과 민간차원의 각종 분야에서 60여건의 협력체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이스라엘에서 UAE로의 수출은 총 1,100만 달러, 수입은 전무 했었는데, 2020년에는 수출 1,800만 달러, 수입은 7,500만 달러에 달했으며, 2021년 첫 8개월 동안 이스라엘에서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은 6,800만 달러, 수입은 2억 4,100만 달러로

19 이기창, “아랍연맹 외무회담 사우디 평화안 논의,” 연합뉴스 (2002.3.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id=0000137627> (2022년 1월 31일 검색)

더욱 증가하였다.<sup>20</sup> 이렇게 아브라함 협정은 단순 정치적인 협정을 넘어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내었기에 참여국가의 일반시민들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동안 유대인자본 기업들의 물건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중동시장에도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아브라함 협정에 대한 아랍 에미레이트 일반시민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호응을 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해온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계속해서 긍정 평가를 하는 것과 왕정체제로 정부비판을 꺼리는 현지인의 특성이 반영된 듯하지만, 연령에 따라 세부적인 반응이 다를 수 있다. 40-50대의 경우, 자신들의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옳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쁘다는 것을 강하게 보인 반면 젊은 세대의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표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젊은 세대들은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직접 겪지 못한 세대로 아랍민족주의 영향을 덜 받아, 팔레스타인 분쟁을 자신들의 문제가 아닌 그들의 문제로 개별화 시키는 경향을 보였다.<sup>21</sup> 팔레스타인인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다른 아랍 국가들에 의존하지 못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졌다.

20 Yeol Guzansky & Sarah J. Feuer, "The Abraham Accords at One Year: Achievement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 for Israel,"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21, 11) <https://www.inss.org.il/publication/abraham-accords-one-year-insights/> (2022년 1월 27일 검색) 위의 수치는 신고된 상품들의 무역에 국한된 것으로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과 하이테크 업종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21 Jaehoon, Hong, "The Effect of Oasis Concept on the Migrant Life in the UAE: View-points of Low-Wage South Asian Workers and Local Emiratis," (Ph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1, 151-52.

### 3. 정치적 이슬람의 와해: 종교간 만남을 통한 평화의 상징으로

2019년 2월, 교황(Pope Francis)은 이슬람의 발상지인 아라비아 반도에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무함마드(Shiekh Mohammed bin Zayed Al Nahyan) 왕세자가 직접 공항 영접을 나가 국가 수장급 환대로 예우를 하였다. 아랍 에미레이트의 정부지도부와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교황은 종교와 문화간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고, 전국의 카톨릭신자들이 교황과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하였다.<sup>22</sup> 이는 2019년 아랍 에미레이트가 ‘관용의해(Year of Tolerance)’로 제정하면서 이에 걸맞은 종교의 교류와 화합을 위해 교황을 초청한 것이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종교적 포용성과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상징하는 의미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세 종교의 예배처소를 한 군데에 짓는 종교단지인 ‘아브라함의 집’을 짓기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는 세 종교의 화합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세 예배당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며, 기독교 교회는 해가 뜨는 동쪽, 이슬람 모스크는 메카방향, 유대교 사원은 예루살렘쪽으로 각 종교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 입구가 나 있지만, 중앙정원을 통해 모두가 연결되도록 설계를 하였다.<sup>23</sup> 이를 통해 오랜 기간 종교로 내홍을 겪은 분쟁지역의 오명에서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중동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길 기대하

22 Allan Jacob, “Pope Francis arrives in UAE, begins historic visit,” Khaleej Times, (2019, 2, 3.) <https://www.khaleejtimes.com/nation/abu-dhabi/pope-francis-arrives-in-uae-begins-historic-visit> (2022년 1월 31일 검색)

23 Arthur MacMillan, “UAE vision of interfaith harmony takes shape in Abrahamic House of Fraternity,” the National News, (2019, 9, 22,) <https://www.thenationalnews.com/uae/uae-vision-of-interfaith-harmony-takes-shape-in-abrahamic-house-of-fraternity-1,912931> (2022년 1월 31일 검색)

고 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로마 교황으로써는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하였고, 수많은 이라크 국민들이 거리에서 타종교 지도자의 방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기독교인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던 IS점령지인 모술을 방문하여 펜데믹으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통받아온 이라크 신도들을 위로하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박해와 부당한 조치들에 용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었다. 그리고 메카와 메디나와 더불어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Najaf)에서 시아파 성직자 그랜드 아야톨라인 알리 알시스타니(Ali al-Sistani)와 만남을 가졌는데, 이는 교황과 시아파 성직자와의 첫 만남이었다.<sup>24</sup>

자국민 무슬림에 대한 포교활동을 철저히 금지하고, 이슬람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동 국가들에서 종교 간의 화합과 공존을 외치는 위와 같은 행보는 이례적인 일들로 이슬람과 관련된 이데올로기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교황 방문에 대한 아랍 에미레이트 현지인들 중 상당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였다. 내부보다는 대외적인 홍보에 더 심혈을 기울인 듯하지만,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세계화 대열에 더욱 깊이 동참해가고 있음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 4. 이슬람 중주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변화

이슬람 전통주의 와하비즘을 건국이념으로 세워진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랜 기간 붙잡고 있었던 제도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사우디의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성가족의 동행

24 "Pope Francis visits regions of Iraq once held by Islamic State," BBC, (2021,3,8)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56309779> (2022년 1월 27일 검색)

이나 허락 없이도 여권을 신청하고 독립적인 여행이 가능해졌다. 메카 순례 또한 가능해졌으며, 여성의 운전도 허락되어졌다. 점진적으로 남녀분리정책 또한 줄어들 것을 발표하였다. 2018년 4월에는 헐리웃 영화 블랙팬서(Blank Panther)를 상영하며, 1983년 이래 처음으로 영화관을 오픈하였다. 그리고 미디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출판물에 대한 언론 감시를 줄이고, 중동지역 내에서 출판된 서적들이 보다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장소에서의 복장검열, 기도시간에 영업을 중지 여부 등을 점검하던 종교경찰의 체포권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사우디 젊은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약 2/3가 35세 이하로 구성된 사우디의 인구분포는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할 것으로 밝혔다.<sup>25</sup>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지는 개혁들은 사우디를 해외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갖게하는 투자처로 만들고, 여행친화적인 환경들로 글로벌 여행객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가고 있다.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사우디 국민들과 경제다각화로 개혁의 길을 닦고 있는 정부의 정책으로 이슬람의 종주국으로 종교적 보수성을 끝까지 유지할 것만 같았던 사우디의 옛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대한 비난과 저항도 있다. 변혁을 통해 불투명한 정치권에서 오히려 중앙정부에 힘을 집중시키고 새로운 왕세자 체제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사회적인 자유와 정치적 자유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꾸란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슬람 문화를 중도

25 Cathrin Schaer, "Saudi Arabia reforms: Royal power play or meaningful change?," *Seutche Welle* (2021.6.27.) <https://www.dw.com/en/saudi-arabia-reform-royal-family/a-58017860> (2022년 1월 28일 검색)

하는 사우디에서 성직자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회적, 법적, 정치적으로 종교와 멀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사상으로 하나로 묶어내기가 어려워지고 주변국들의 변화로 점차 약해지는 역내 리더십과 새로운 생존법을 찾아가야 하는 세계화의 물결이 사우디 개방을 촉진하고 있다. 이슬람의 만행 노릇을 해왔던 사우디의 변화로 중동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어지고 있다.

## 5. 정치지도자의 세대교체

2010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아랍권 전역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를 향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예멘의 대통령은 실각되면서 장기 집권을 종식시켰다. 2013년 카타르의 하마드(Sheikh Hamad bin Khalifa Al thani) 국왕은 왕세자에게 자발적으로 왕위를 이양하였다. 국왕의 타계나 쿠데타로 왕권이 이양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이곳 정서에서 생존하고 있는 국왕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왕위의 세대교체로 내각들도 젊은 세대로 교체되면서 선대왕이 추진하던 개혁과 개방 노선을 계승해 나갔다. 2015년 사우디의 압둘라(Abdullah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의 타계하고 이복동생인 살만(Salman) 왕세자가 이어받았으나, 그도 고령이어서 아랫세대인 새 왕세자가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 2020년에는 고령이었던 오만과 쿠웨이트의 국왕이 타계하면서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최근 중동 아랍권에서 실권을 잡게 된 지도부들은 기존의 정치

사상들을 형성시킨 역사적 사건에 영향을 덜 받은 세대들로 개혁과 개방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낼것이라 평가된다.

#### IV. 아랍 청년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미시적 분석

Arab Youth Survey(이하 AYS)는 2008년 9개국을 시작으로 매 년마다 조사 국가를 늘려가며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아랍국가 전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왔다. 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부자적 관점으로 중동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아랍인들의 생각과 스스로 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 중 하나일 것이다. 특별히 매년마다 축적된 데이터 변화를 추적하면서 현재 아랍 현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더욱이 조사 대상인 젊은 세대는 인구 통계적으로 가장 큰 집단이기도 하면서 아랍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의 생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에서 정책결정 및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 이번 과에서 주로 분석의 기반으로 삼을 AYS 2021은 기존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팬데믹이 전세계를 강타한 이후에 실시한 첫 조사로, 결과를 통하여 팬데믹이 미친 영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sup>26</sup> 조사지역은 17개국<sup>27</sup>의 50개 도시, 18세에서 24세의 남녀 동

26 AYS 2020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 1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27 GCC (5개국): 바레인,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쿠웨이트, 레반트와 그 외 지역 (6개국):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예멘, 이라크, 팔레스타인, 북아프리카(6개국): 리비아, 모로코, 수단,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일한 비율의 3400명에게 2021년 6월에 조사한 것이다.

## 1. 아랍전통 부족주의의 약화

아랍지역에서 현지인들의 사업체에서 직원을 구할 때 친인척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며, 인맥을 통해서 구인 및 구직활동을 한다. 서구화된 국가에서는 이를 정실인사와 부정청탁으로 비난을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랍인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행해진 당연한 일이다. 이를 와스타(*wasta*)라고 불리는데, 척박한 사막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부족단위로 뭉쳐야지만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아랍의 전통 부족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랍의 젊은 세대들에게 와스타는 부패를 만듦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AYS 조사에 의하면, 77%가 와스타의 역할이 지역에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28</sup> 그리고 펜데믹으로 대그룹 가족모임이 줄어들어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통과 사상을 전달하는 마젤리스 문화가 약화되고, 늘어나는 인터넷 사용시간으로 외부세계로부터 받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아랍 여성들의 지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아랍 여성의 사회 참여율 18.4%으로 국제 평균 48%에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은 주로 쉽게 대체 가능한 저임금의 단순 업무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어서 펜데믹으로 남성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직율을 보였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에 대한 열망과 인식은 향상되었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도 변화

28 Arab Youth Survey 2021, ASDA'A BCW, 20.

하고 있다. 남성의 35%만이 여성들이 집에 머물기를 바라뿐, 과반이 넘는 나머지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많은 여성(74%)들이 스스로 사회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사우디의 한 여성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사회에서 배제된다면 그 사회는 시들고 죽어갈 것이라고 답변하며, 여성들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강력히 호소하였다.<sup>29</sup>

## 2. 종교에 대한 영향력 약화

아랍 청년들에게 개인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이슬람이 단연 1위로 종교가 아랍인들의 정체성에 가장 핵심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서는 이슬람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40%가 이슬람이라고 꼽은 반면, 2021년의 결과에는 34%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가족과 국가가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근소하게 늘어났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과 국가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기도 하지만, 종교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2/3 이상의 아랍 청년들은 2019년 조사부터 제기된 질문을 통하여 종교기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시리아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무함마드(Mohammad Shahrouh)는 아랍 젊은이들은 근대화 앞에서 지적 소용돌이를 맞이했다고 답변했다. 엄격하고 폐쇄적이며, 근대화 속에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무조건 이단으로 치부시키는 종교사상은 전통의 겉모습만 보일뿐 지나치게 단순화하

29 Ibid., 78-83.

여 융통성이 없고 퇴보적인 종교해석만 내놓는 것에 원인을 찾았다.<sup>30</sup> 매일 드리는 *Salah* (하루 다섯 번 드려야하는 이슬람 기도)와 라마단 기간에 단식을 행하며 종교적인 행위는 삶의 관습을 이어지겠지만, 이슬람에 대한 심정적 따름은 줄어들고 있다.

### 3, 강화되는 개별국가주의와 개인주의

아랍 청년들은 펜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극복과 같은 현재 직면한 일시적인 이슈(88%)를 제외하고는 생계비용 상승(89%), 교육의 질(87%), 실업(84%) 등 장래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삼고 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아랍 지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7.1%였으나,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2021년에는 12.8%로 재정수입의 상당비율이 필수품 구입에 지출되고 있다. 2018년 이후로부터는 약90%의 청년들이 물가 상승에 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마다 그 비율과 세부적인 문제들은 다소 다르겠지만 생계(kitchen table issues)에 관한 문제는 근래 들어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1</sup> 이에 대한 아랍 청년들의 해법은 개인이 헤쳐 나가야 할 문제로 인식하거나,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과 직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랍민족주의, 이슬람주의 등 예전에 큰 목소리를 내던 이념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드러날수록 이들 사이에서 개인주의는 더욱 가속화 되고, 개별국가를 향해 요청 사항은 늘어나고 있다.

아랍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인주의는 개인 통신기기를 통한 미

30 Ibid., 44-49.

31 Ibid., 20-22.

디어 사용을 통하여 형성되고 급속하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소수의 방식으로 기득권층의 극히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전통과 사상이 전수되는 형식이었다. 즉 정부기관이나 집안의 어른들에 의해 전통 언론매체나 가족 모임에서 구두로 기존 가치관들이 전수되는 탑다운(top-down) 형식을 보였는데,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된다. 또한 개인 채널을 통해 스스로가 정치적인 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청년주도의 시위를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기도 하면서, 단순 수용자에서 능동적인 주체자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아랍사회는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로 인하여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집트 개혁의 상징인 된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에 걸린 플래카드 중 하나는 “Thank you, Facebook”이었다. 실업과 정치적 자유에 대해 놀려 있던 아랍 청년들은 온라인세계에서 좌절을 표출하고 공통된 사람들을 군집시켜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투쟁과 정치운동에 주체가 된 것이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채널과의 접촉이 위에서 주입되었던 기존의 거대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하면서도 자신만의 취향에 맞는 개별적인 가치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최근의 변화로 사회가 불안한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를 제외하고 절반 이상의 아랍 청년들은 본국의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중시한다고 느끼고 있다. UAE,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의 청년들 중 90%는 정부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중시한다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청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정부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의견 수렴을 잘 한다고 나라 운영까지 잘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정책을 옳게 펼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49%은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특히 오일머니로 자국민들에게 풍성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주고 있는 GCC 지역 국가들(88%)을 제외한 북아프리카(46%)와 레반트(21%)지역의 국가들에서는 현지 정부가 정책 수행을 옹계 행하고 있다는 답변한 사람들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sup>32</sup> 이를 통해 아랍 청년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안전지대를 개별국가가 제공해주길 강력하게 바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불만족스러운 정책으로 개인 스스로가 다른 것을 중시하며 개인을 희생을 요구하는 어떠한 정치 사상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삶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국에서 이탈하려는 높은 이주 희망율과 연관성이 있다. 높은 실업율과 정부의 잘못된 경제 운영관리 및 국내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같은 상황으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고국에서 찾을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고국을 떠나 보다 나은 환경이 갖추어진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조사에 의하면, 2020년까지만 해도 절반에 가까운 42%가 이주를 생각하거나 적극적으로 준비한다고 대답했다. 본국 만족도가 높은 GCC(13%)을 제외한 레반트(63%)와 북아프리카(47%)만을 본다면 절반이 넘는 청년들(55%)이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조사한 2021의 결과에는 이주 희망자가 33%로 줄어들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별 이주수용에 대한 제재가 생기고,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들이 팬데믹 극복 방안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해지는 분위기

32 Ibid., 36-38.

로 인해 잠시 꺼려지는 것이 반영되어 전년도보다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이 타국으로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수입 창출을 위한 경제적인 것이고, 그 외에 교육의 기회, 본국 정부의 부패를 꼽았다. 이들이 이주하기 희망하는 나라는 같은 혈통인 아랍국이나 이슬람국가가 우선 대상이 아니고, 보다 나은 급여와 취업에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캐나다, 미국, 독일, UAE, 프랑스를 선호한다고 답변했다.<sup>33</sup> 또한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정부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것은 줄어들고, 개인과 가족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NPO에서 근무와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통해 다른 어떤 것보다 개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sup>34</sup>

## V. 결론

근대에 형성된 아랍인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적이나 실제로 대척점에 있는 상대를 통하여 개념화를 시키거나 현지 정부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반대급부를 배제시키는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는 안보적 사안과 연관시켜 아랍인 정체성의 뿌리에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20세기 중반에는 이스라엘과 식민주의에 대항하여 범아랍주의를 형성해 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설픈 군사적 대응은 아랍 세계의 시민들에게 정치적 불만을

33 Ibid., 70-72.

34 Ibid., 31-32.

키웠다. 하지만 안보라는 중대 이유로 대통령 임기 제한 철폐, 헌법과 법치에 의한 통치 중단 등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들을 정당화하였다. 이는 30년 넘게 지속된 국가 비상사태법의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강력한 공권력을 지닌 권위주의 정권들이 국민들을 국가주의 정체성 안에 가두어 대의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시켰다. 또한 아랍 정부들이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는 희생양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이 약화되자 대체제로 이란을 이용하며 그 명맥을 이어 오기도 했다.<sup>35</sup> 이슬람주의는 정치적 통치를 강화하거나, 혹은 부당한 통치자들을 대항한 반대수단으로 형성되어져 시민들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에 대한 심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sup>36</sup>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동안 아랍인들 사이에서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던 이러한 정치사조들은 점차 힘을 잃어 갔고, 세계화의 물결속에 아랍지역에도 개인주의가 퍼지기 시작했다. 이 흐름에는 특히 아랍의 젊은 세대들로 있었으며, 이들은 중동 아랍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 이들 사이에서 개인화가 가속화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아랍의 젊은 세대들은 과거 중동 아랍지역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던 사상들이 생겨나게 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보니 영향력도 미미하다. 또한 이들은 과거의 사상들이 최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구세대적인 사상으로 외면하고 있다. 과거의 가치체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줄 동력을 잃게 되자, 다음 세대로의 전수도 자연스레 힘을 발휘

35 P. R. Kumaraswamy, "Who Am I? The Identity Crisis in the Middle East,"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0, No. 1 (March 2006).

36 Mark Tessler, "The Origins of Popular Support for Islamist Movement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in *Islam, Democracy and the State in North Afric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아랍 국가들은 기존 사상에 반하는 행보들을 해왔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국가가 이전 정체성에 대한 충성심을 버려도 된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 되었다.

셋째, 기존 정체성이 약화되는 공백기에 세계화가 되어버린 개인주의가 이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게 되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개인별 온라인 사용 시간이 늘어가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여론 형성을 이끌면서 개인화는 확산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펜데믹은 개인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모임이 제한되면서 정기적인 가족모임이 사라져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자연스레 전통을 전수해주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 개인주의를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사용시간이 더욱 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던 울타리들이 더 이상 소속원들을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자 젊은 세대들은 최대한 개인의 이익극대화를 할 수 있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서 사고하고 행동을 결정해나가는 신세대 생존전략이 재인주의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아라비아 반도의 석유부국들, 그리고 오랜 정치 시스템을 깨고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고 있는 중동·북아프리카의 아랍국가들. 지금 엄청난 외형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엄청난 내적인 혁명을 또한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특별히 급변하는 시대를 몸소 겪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아랍의 젊은 세대들은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아랍인의 내면적인 가치 체계의 변화 또한 선도할 것으로 본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사상들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윗세대들의 일부도, 현재 아랍인 내에서 인구통계적으로 가장 큰 집단체를

이루는 이들의 규모 앞에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변화의 과도기에 있는 중동지역에서 아랍 신세대들의 가속화 되어지는 개인주의는 미래 변화상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
- 하병주.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모색 I.”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1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2007): 257-258.
- “서울시 MZ세대 첫 분석 시민 셋 중 한명, 서울에서 가장 큰 세대 집단.”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1.8.10)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30668> (2022년 1월 19일 접속)
- 신동현. “통계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뉴노멀 시대, 대한민국의 변화와 이슈.” 통계청. [http://sti.kostat.go.kr/window/2020b/main/2020\\_win\\_15.html](http://sti.kostat.go.kr/window/2020b/main/2020_win_15.html) (2022년 1월 19일 접속)
- 이기창. “아랍연맹 외무회담 사우디 평화안 논의.” 연합뉴스 (2002. 3. 8)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137627> (2022년 1월 31일 검색)
- Arab Youth Survey 2021, ASDA’A BCW.
- Haddad, Fanar. “Marked for Exclusion: The Problem of Pluralism, State-Building, and Communal Identities in Iraq and the Arab World.” *Middle East Institute* (August 2014)
- Hong, Jaehoon. “The Effect of Oasis Concept on the Migrant Life in the UAE: Viewpoints of Low-Wage South Asian Workers and Local Emiratis.” (PhD,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21, 151-52.
- Houtsma, ed., *E.J. Brill’s First Encyclopedia of Islam*, 1913-1936. (1987), 125-126.
- Jack, Cohen. “The Middle East Conflict in the Context of Tribal

- Dispute.” *Group Decis Negot* 20 (2011): 373–380.
- Jonah D, Levy, ed., *The State After Statism: New State Activities in the Age of Liberaliz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469.
- Muslih, Muhammad. “Arab Politics and the Rise of Palestinian Nationalism.” *Journal of Palestine Studies* Vol.16, No.4, (Summer 1987): 77–94.
- P. R. Kumaraswamy. “Who Am I? The Identity Crisis in the Middle East.” *Middle East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0, No. 1 (March 2006)
- Salzman, Philip. “The Middle East’s Tribal DNA.” *Middle East Quarterly* (2008 winter): 24.
- Tessler, Mark. “The Origins of Popular Support for Islamist Movements: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in *Islam, Democracy and the State in North Afric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 Tibi, Bassam. *Arab Nationalism: Between Islam and the National State* (Hampshire and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7), 86–87.
- “Arab Unity.” *The Continuum Political Encyclopedia of the middle East*. Ed. (Avraham Sela. New York: Continuum, 2002): 160–166.
- Bjerde, Anna. “Fulfilling the aspirations of MENA’s youth.” World Bank Blogs, (2020, 1, 13) <https://blogs.worldbank.org/arabvoices/fulfilling-aspirations-menas-youth> (2022년

1월 19일 접속)

Guzansky, Yeol & Feuer, Sarah J. “The Abraham Accords at One Year: Achievements,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 for Israel.” The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2021, 11) <https://www.inss.org.il/publication/abraham-accords-one-year-insights/> (2022년 1월 27일 검색)

Jacob, Allan. “Pope Francis arrives in UAE, begins historic visit.” Khaleej Times, (2019.2.3.) <https://www.khaleejtimes.com/nation/abu-dhabi/pope-francis-arrives-in-uae-begins-historic-visit> (2022년 1월 31일 검색)

MacMillan, Arthur. “UAE vision of interfaith harmony takes shape in Abrahamic House of Fraternity.” the National News, (2019.9.22.) <https://www.thenationalnews.com/uae/uae-vision-of-interfaith-harmony-takes-shape-in-abrahamic-house-of-fraternity-1.912931> (2022년 1월 31일 검색)

Marriage,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portal, <https://u.ae/en/information-and-services/social-affairs/marriage> (2022년 1월 25일 검색)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Youth Facts, Youthpolicy, <https://www.youthpolicy.org/mappings/regionalyouthscenes/mena/facts/#FN13> (2022년 1월 19일 접속)

Mufson, Steven. “How Qatar’s cows show the growing resistance to a Saudi-led boycott.” The Washington Post, (July 21st, 2019)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middle\\_east/](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middle_east/)

how-qatars-cows-show-the-growing-resistance-to-a-saudi-led-boycott/2019/07/19/78880256-a4b2-11e9-a767-d7ab84aef3e9\_story.html (2022년 1월 27일 검색)

Schaer, Cathrin. "Saudi Arabia reforms: Royal power play or meaningful change?." Seutche Welle (2021, 6. 27) <https://www.dw.com/en/saudi-arabia-reform-royal-family/a-58017860> (2022년 1월 28일 검색)

"Pope Francis visits regions of Iraq once held by Islamic State," BBC, (2021, 3. 8)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56309779> (2022년 1월 27일 검색)

I형제, 2022년 1월 21일, 현지인 가정

■ ABSTRACT

## An Analysis on Individualized Worldviews of MZ generations in Arab World

Jae Hoon Hong

Over the past years in the Middle East, the same way of thinking had been passed down as wisdom and knowledge from the older generations to the younger generations, part of a patriarchal and tribal tradition. Metadiscourses formed by local political leaders in a top-down system have become the identity that defines Arabs. Recently, however, a strong wind of change has begun to blow in the Arab region, which had long shown strong solidarity with its unchanging value system. This change is being led by the younger generation, the region's largest demographic group,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historical events that have resulted in the existing ideas. The older youth are spreading individualism through various online channels outside the uniform delivery of information. In addition, the policies of several Arab countries that are contrary to the existing Arab ideology due to changing dynamics in the region are encouraging the youth to

have a new survival strategy. The paper examines the proliferation of individualism through the survey results of Arab youth.

**Keywords:** Arab, Identity, MiddleEast, New Generation, MZ, AYS, Individualization, Muslim, Tribalism, Arab Nationalism